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목 도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8)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복69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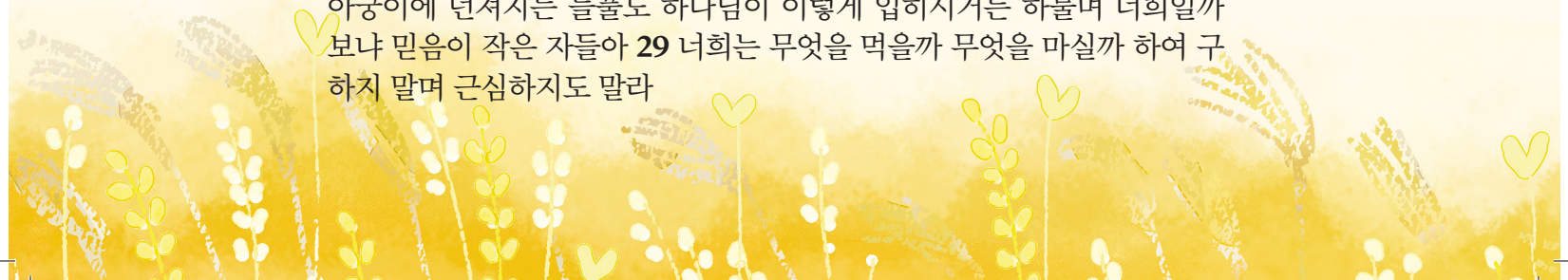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누가복음 12:22-29 다함께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추석을 통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통해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아무 문제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동안 빠가 마르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좋지않은 염려를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제대로 책임지실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에 있을 걸 그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러 형태의 걱정 근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신은 돌이켜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5:7).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68:19). 주님은 염려거리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날마다 너희 짐을 저줄테니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봤자 키를 한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하시도록 전부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자들은 그 능력과 돌보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추수한 곡식과 과실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과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 현실의 문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되뇌이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지는 복된 명절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 1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2 어려워 낙심 될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때 주 너를 지키리
- 3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4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